

건강한 속사람 X Ⅲ.

내면의 분노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1.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마태복음 24:12]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특이한 사항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다. 기록된 나머지 현상들이 외적인 징조라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타적인 속성의 사랑이다.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보이셨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기적인 시대', '자기'만을 아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웃을 향한 어떤 내면의 공간도 없는 강박한 마음의 시대라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시대를 말한다. 결국 내면이 강박해진다는 것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자기통제와 절제란 없다. '내 마음'대로 해야한다. 내 마음의 뜻이 막히면 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적'이 되는 것이다.

2. 거절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내 자유의지를 통해 선악과를 먹었으니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은 적대감이 바로 '바벨탑'이다. 이와같은 죄성의 뿌리가 언제나 인간의 내면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사울이다.

(1) 가인

[창세기 4:4-5]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이유는 분명하다. 제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인에게 '거절감'을 주었다. 그것이 가인의 내면을 강박하게 했다. 동생을 죽이는 분노로 표출되었다. 내가 거절당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고아의 마음이다. 내면이 얼어붙어 있다. 왜 그런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고아의 마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아버지도 (압살롬을 보라, 아버지도 제거의 대상이 된다) 아들(사울을 보라)도 제거의 대상이 된다. 사랑하는 충복 (다윗도 우리아를 제거한다)도 제거의 대상이 된다.

[창세기 4:9]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있냐고 물으셨다. 그런데 대답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호로 나온다. 하나님께 분노한다. 결국 마귀의 유혹을 통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적대감 있는 고아의 마음이다. 스스로 거절당했다고 여기게 하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2) 사울

[사무엘상 18:7-8]

7 이 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8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울의 내면을 보라.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이 되는 사울의 행동은 '불순종'으로 표현된다. 결국 그 내면이 망가진 사울의 마음을 보라.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는 여인들의 칭찬에 사울은 '거절감'을 느꼈다. 다윗을 품는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다. 아들과 같은 다윗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된 것이다. 경쟁 상대가 있는 한 자신은 인정받을 수 없다. '거절감'으로 가득하다. 이미 죄성의 묶임 아래에 있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이다. 8절에 보면 몹시 언짢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분노의 이유는 하나이다.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거절감은 분노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3) 탕자의 형

돌아온 동생 탕자를 보고 왜 형이 아버지에게 분노했겠는가?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절감'이다. 결국 가인, 사울, 탕자, 범죄한 다윗의 예를 보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서적으로(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

3. 내면안에 있는 분노의 칼을 제거하라.

위에 열거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노의 칼은 죄성있는 우리 내면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노의 칼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름받아야 한다.

(1) 모세

[출애굽기 2:11-12]

11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12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출애굽기 3: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면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애굽 사람을 자기 뜻대로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결국 이 사건이 모세를 광야로 내 몰았고, 그 곳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러나 부르심 뒤에는 우리의 내면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민족의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품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힘의 리더십이 아니다. 이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을 경작하신다.

(2) 바울

살인자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 마음안에 분노와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한 바울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어 3년을 머물게 하신다.

(3) 부르심 그리고 광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다. 그것은 부르심 뒤에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

- 모세 / 바울 / 다윗 / 요셉 / 예수님 /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가기 전)

광야는 옛 자아가 죽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는 쉽지 않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면이 '성숙해졌다'라는 뜻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며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뜻이다.

4. 내면이 건강한 영성

(1)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는 자아가 죽고 성숙해지는 장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곳이 광야이다. 분노의 결과는 결국 자기 후회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한다.

(2) 이드로가 필요

*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분노'가 무서운 이유)

거절감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이드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모세의 광야 시간을 돌보아 주었던 이드로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3) 분노가 제거된 온유한 마음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결국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마음의 칼이 제거된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보듬을 수 있다. 어떻게 모세가 저항하는 백성을 안을 수 있었겠는가? 저항하는 탕자를 어떻게 아버지가 안을 수 있었겠는가? 저항하는 압살롬을 다윗이 어떻게 안을 수 있었겠는가?

'자신 스스로가 용납'받아 보았기 때문이다. 용납받아 본 사람, 즉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다. 내가 용서 받았고 용납 받았다는 은혜를 알자.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